

先進國 政府開發援助(ODA)의 基本方向

- 日本國의 理念과 原則을 중심으로 -

1997.



韓國國際協力團 研究室

尹楊培 部長

* 2/2

목차

(1) 원조의 기본이념 -----	2
(2) ODA기본방침의 4원칙 -----	4
(가) 「4원칙」 운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5
(a) 종합적 판단의 중요성 -----	5
(b) 일정기간의 동향을 주시 -----	5
(c) 운용에 있어서 2가지의 접근방법 -----	6
(d) 인도(人道) 원조에의 배려 -----	7
(나) 「4원칙」의 운용상황 -----	8
(a) 제1원칙(환경과 개발의 양립) -----	8
(b) 제2원칙(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에의 사용 회피) --	9
(c) 제3원칙(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병기, 미사일의 개발, 제조,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 --	10
(d) 제4의 원칙(개발도상국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기본적인 인권 상황에 충분한 주의) -----	11
(3) 「투명성과 책임」 있는 원조의 실시 -----	13
(4) 일본의 원조 어프로치 -----	13
(가) 발전단계에 따른 원조에 실시(Differentiated Approach) --	14
(나) 포괄적 어프로치(Comprehensive Approach) -----	15
(다) 3가지의 균형(Balanced Approach) -----	17
< 참고 > 정부개발원조 기본방침(政府開發援助大綱) -----	20
정부개발원조의 제5차 중기 목표 -----	26
주요국에 대한 국별 원조방침 -----	28
인도네시아 국별지원방침 -----	28
베트남 국별지원방침 -----	32
태국 국별지원방침 -----	35

(1) 원조의 기본이념

1992년 6월 30일,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정부개발원조의 기본방침(ODA기본방침)」을 의결했다. ODA기본방침은 냉전의 종언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면서 40년가까이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실적, 경험, 교훈을 참고하여 결정되었다. 이것은 기본이념, 원칙,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일본의 원조방침을 포괄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집대성한 것이다. ODA기본방침에서는 원조의 기본이념으로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ODA기본방침의 기본이념>

- ① 인도적 고려
- ②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의 인식
- ③ 환경의 보전
- ④ 자조노력의 지원

첫째, 「인도적 고려」는 일본이 ODA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도 세계의 대다수를 점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빈곤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도의적 관점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일본이 원조를 통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둘째, 「국제사회의 상호의존관계의 인식」은 현재의 세계정세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있어서 상호의존관계는 한층 깊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하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은 세계경제 전체의 발전에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와 자유롭게

개발된 세계경제는 불가결하며, 이념의 부분은 ODA를 통한 협력이 개발도상국의 개발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일본의 평화, 안정, 번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개발도상국가에의 원조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나라와 일본과의 양국관계가 고려되는 것도 당연하다.

1995년 1월 한신(阪神)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일본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을 뿐 아니라 70여개국이 원조물자를 보내왔다. 그중에는 일본이 행한 원조에 대한 보답으로서 개발도상국이 보낸 것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일본으로서 이런 보답을 기대하고 원조를 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은 「상호의존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환경의 보전」은 일본의 ODA에 있어서, 전인류 공통의 과제로서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지구환경문제를 중시한다고하는 일본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 자신이 과거 공해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것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는 당연히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의 지원」은 원조를 받아들이는 측이 자조(自助)노력에 기초하여 자국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그 나라의 진정한 경제적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일본이 자신의 경험과 동아시아에 대한 원조의 경험으로 종전부터 구미 여러나라에 앞서 주장하여 온 것이다.

(2) ODA기본방침의 4원칙

기본이념과 함께 ODA기본방침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다음의 4가지 원칙이다.

<ODA기본방침의 4원칙>

- ① 환경과 개발의 양립
- ②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예의 사용 회피
- ③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병기의 개발, 제조, 무기의 수출입의 동향에 주의
- ④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의 촉진 및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 상황에 주의

「4원칙」에 제시된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 강화, 민주주의, 시장경제화, 인권, 환경중시 등은 단지 경제협력의 틀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냉전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안에서 존중되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이런 인류공통이라고도 할 목표의 실현은 일본의 외교활동 전체를 통해 몰두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으로서는 원조와의 관련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동향을 충분히 주시해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도 개발도상국 및 다른 원조국과 종종 양국간의 왕래나 정책대화 등을 할 때, ODA기본방침에 제시된 일본 원조의 기본 사고방식을 반복하여 설명해 온 결과, ODA기본방침은 일본 원조의 기본방침으로서 국내외에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ODA기본방침은 원조와 「좋은 통치」와의 관계에 대해 일본이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예를 들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대일원조심사(1992/93)에서는 일본의 “ODA기본방침은 과거 수년간에 걸쳐 DAC 및 기타 개발원조기관에서 추진되어온 개발에 관한 가장 뛰어난 사고방식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일본정부가 어떤 사고방식, 판단으로 「4원칙」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가) 「4원칙」 운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a) 종합적 판단의 중요성

ODA기본방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4원칙」의 운용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외교적 배려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개개의 개발도상국이 놓여있는 국제환경, 경제적, 사회적 배경 등 구체적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4원칙」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예를 들면, 군사비지출에 대해서는 일정의 획일적 수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원조를 평가한다)것같은 대응은 적절치 못하다. 구체적으로는 피원조국에 있어서 「4원칙」의 각 사항(특히 민주화의 촉진, 인권 보장상황, 군사지출 등의 제3, 제4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의 동향에 덧붙여, 그것들에 응하는 해당 개발도상국 정부의 자세, 정책, 또한 해당국과 일본과의 정치경제관계나 해당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ODA기본방침에 있어서 「4원칙」의 운용은 “국제연합헌장의 여러 문제(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간섭)”를 고려하고, “상대국의 요청, 경제, 사회상황, 양국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일정기간의 동향을 주시

「4원칙」의 각 항목(특히 제3, 제4의 원칙에 걸린 사항)은 상대국의 안전보장 및 내정상의 문제에 깊이 연관된 사항을 다루고 있어, 단지 일본만의 도전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국의 협조 움직임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의 자각·노력이 없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피원조국에 우려할만한 사태가 생긴 경우, 원조를 즉시 재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 우려표명, 사태개선의 요청 등의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상대국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대화를 통해 어디까지나 개발도상국 자신이 문제의 소재를 인식하고 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국제사회 및 일본 국민들이 볼때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해당국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해당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를 바꾸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원조를 전부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원조를 중지시키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런 「4원칙」의 단계적 운용이라 해야 할 접근방법은 항상 상대국가 정부에 대해 정책변경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계속 주는데 있으며, 즉시 원조를 중지함으로써 그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접근방법은 「우호적 설득」이나 「조용한 외교」를 통해, 상대국에 목표추구를 위해 끈기있게 움직이는 것이며, 그 때는 일정기간의 동향이나 자세를 보아가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ODA기본방침에는 특히 원칙의 제3의 각 항목에 관하여, 그 「동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절대수준 자체를 즉각 문제삼으라는 것이 아니다.

(c) 운용에 있어서 2가지의 접근방법

「4원칙」의 운용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의 촉진 및 인권의 보장, 군사지출의 동향 등에 대해 바람직한 움직임이 보여지는 경우, 이런 개발도상국의 개발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는 접근방법(포지티브 링케지)과, 역으로 「4원칙」에 비추어 분명히 바람직하지않은 움직임이 보여지는 경우에 그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줄여가는 접근방법(네가티브 링케지)의 2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그중 네가티브 링케지에 대해서는 하는 방식에 따라 일본의 가치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일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고하는 포지티브 링케지의 쪽이 일본의 이제까지의 경험등에 비추어 보다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다른 원조국도 마찬가지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91년 6월에 초우가이 영국해외개발청장관이 행한 연설에서도, “Good Government(좋은 통치)”의 추진 목적은 이것에 반한 국가에의 원조의 중지가 아니라 민주화의 추진에 있으며, “Good Government”의 사고방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d) 인도(人道) 원조에의 배려

「4원칙」의 운용에 의한 원조의 중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정책형성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일반국민, 그중에서도 빈곤층이지만, 「4원칙」의 운용에 의한 원조의 삭감및 중지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빈곤층의 경제.사회조건, 일반생활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조의 정지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도 전부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국민생활에의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긴급적, 인도적 원조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일본은 「4원칙」에 기초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는 경우에도 “널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긴급하고 인도적 성격을 가진 원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면 중지”라고 하는 대응을 해오고 있다. 민주화의 추진, 인권문제의 개선이라하는 궁극의 목적은 같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대 버마원조의 접근방법이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다른 것은 이런 사고방식을 기초로 해왔기 때문이다.

(나) 「4원칙」의 운용상황

(a) 제1원칙(환경과 개발의 양립)

제1원칙에는 (1) 환경관련 ODA의 확충과 (2) 원조조건을 실시할 때 환경배려, 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일본은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92년부터 5년간 9,000억-1조엔의 환경ODA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환경센터의 설치를 시작으로 한 환경안전의 적극적 실시외에, 개발도상국과의 원조협정의 등의 기회를 이용한 정책대화(환경조건의 적극적 요청의 독촉 등), 양호 환경안전의 발굴, 환경정책대화 미션의 파견, 환경분야에 있어서 자금협력의 공여기준의 탄력적 운용 등이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원조협정에 있어서, 환경분야가 일본 원조의 중점분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중국에 대해 환경 중시를 반복하여 설명한 결과, 중국에 대한 제4차 엔차관의 전반기 3년분(96년부터 시작하는 3년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40건 중 15건의 환경보전사업(대기오염, 수질오염대책 등)이 들어가 있다.

게다가 일본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의 엔고(円高)에 의한 엔차관 채무부담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95년 6월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그런데 특히 환경안전에 대해서는 일반안전의 금리보다 0.2% 더 낮은 특별금리를 설정했다.

원조를 실시할 때, 일본이 환경조건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개발도상국과의 정책대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상대국에 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별 프로젝트의 채택, 실시, 평가의 소위 단계마다 환경 배려에 유의해오고 있다. 또한 JICA, OECF라고하는 원조실시기관은 환경배려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환경배려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이 환경보전상 건전한 방식으로 자조노력에 의해 개발을 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이 해야 할 환경배려로서는 JICA가 개발조사 등 여러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환경분야에 있어서 대처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OECF는 그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사업실시 주체인 개발도상국이 취할 환경상의 조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 환경상의 필요한 조치(환경 접근 등)를 개발도상국에 맡기지않고 일본 자신이 보다 엄격한 형태로 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환경배려에 관련된 문제는, 상대국 국민들간의 서로 다른 이해의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상대국 정부가 행해야할 것이며, 일본으로서의 상대국과의 관계상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최근 환경배려의 관점으로부터 개별의 프로젝트의 실시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한 것도 적지 않다. 그 중에는 주민이전에 관련된 안건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1) 대다수 주민의 동의, (2)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확보된 다음에 비로소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측보다는 바탄간수 항 프로젝트의 경우, 주민이전문제의 진척을 강하게 요구한 결과, 필리핀측의 노력에 의해 사태의 개선이 시도된 사례가 있다.

(b) 제2 원칙(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예의 사용 회피)

원조가 애초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나 복지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원조에 의해 제공되는 물자.서비스.자금이 군사목적이나 국제분쟁 조장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누차 국회 결의에서도 확인되어 온 것이며, 일본이 ODA기본방침을 책정하기 이전부터의 일관된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약속인 교환공문에 있어서 자금을 적정히 사용할 것을 개발도상국에 의무지우고, 또한 약속의 심사.인증이나 피원조국으로부터의 자금용도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까지도 예를 들면 공항건설을 위한 개발조사의 요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제출되는 경우에, 그 공항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제동을 걸어 왔다.

(c) 제3원칙(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병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

제3의 원칙이 규정된 배경의 하나로서는 90년의 걸프만 위기의 발발에 의해, 개발도상국의 군비강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군비관리.군축에 있어서 일층 노력을 행할 필요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강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한정된 자금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도 군비가 아닌 개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고에 기초하여 일본은 원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이나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 제3의 원칙에 비추어 원조의 중지를 행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원칙의 각 사항은 우리나라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입장이 아니라 상대국으로부터의 설명이나 공개의 자료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기 때문이다.

군사지출의 증대나 무기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우려를 나타냈던

인도네시아나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에 대해, 각종 연차협의 등의 기회를 통해 일본의 우려와 ODA기본방침의 생각을 전했다.

대량파괴 무기에 관해서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일본 및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일본은 양국 각각과의 사이에서 핵불확산문제에 관한 2개국간 협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핵병기불확산조약(NPT)에의 가맹을 권유하는 동시에 핵관련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95년 5월에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일본은 유감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대중 경제협력(무상자금협력)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로 억제적으로 대응해갈 방침을 결정했다. 8월에 다시 핵실험이 행해졌으나 일본은 이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개혁·개방 정책에 기초한 근대화 노력을 지원한다고 하는 대중정책의 기본은 유지하되, 95년도의 무상자금협력에 대해서는 재해긴급원조, 소아미비 박멸계획 및 풀 뿌리 원조만을 행하는 것으로, 동시에 96년도 이후에 대해서도, 핵실험의 중지가 명확히 되지않는 한, 긴급적·인도적 성격의 원조 및 풀 뿌리 원조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8월말에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했다.

(d) 제4의 원칙(개발도상국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기본적인 인권상황에 충분한 주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그 원칙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 일본으로서도 그 개발도상국의 개발노력을 원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까지도, 중동구에 있어서 체제변혁에 따른 민주화·시장경제화 노력에의 원조부터 시작하여, 민주화나 시장경제화를 진행시키는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해서는 몽고 지원국회합이나 캄보디아 부흥국제위원회(ICORC) 등의 개최, 베트남의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지원이나 중앙아

시아 5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개발도상국 리스트 게재에의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아시아 지역이외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개발 회의의 개최나 남 아프리카, 팔레스티나, 중미 제국 등에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부의 전복 등 바람직하지 않은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에는 일본으로서, 상대국에 대해 사태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 외에 각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국에 대한 원조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 원조를 원칙중지했던 경우로서 미얀마(88년), 자이레(91년 9월), 하이티(91년 10월)(이상 기본방침 책정전에 정지, 재개할 때는 「4원칙」을 감안), 수단(92년 10월), 토고(93년 1월), 과테말라(93년 5월), 시에라리온(93년 5월), 나이지리아(94년 3월), 감비아(94년 9월)이다. 또 전면적인 원조정지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사태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 사례나 일부의 원조를 바꾼 사례로는 페루, 타이(이상 사태를 개선하도록 권고), 케냐, 잠비아, 말라과 이(이상 국제수지형 원조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미얀마에 대해서는, 88년의 민주화 요구운동에 의한 혼란, 그 후의 국군의 쿠데타 이후, 일본은 일정 분야를 제외하고 원조를 원칙중지하여 왔으나, 95년 7월의 아웅산 수지 여사의 자택연금을 풀다는 동국의 사태의 진보에 따라 95년 7월 이 방침을 일부변경하고 앞으로 민주화 및 인권상황의 개선을 계속 지켜보면서 당분간 이미 계속된 안건이나 민중에 직접 이익을 주는 기초생활분야(BHN)의 안건을 중심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한 후 실시하도록 했다.

(3) 「투명성과 책임」 있는 원조의 실시

최근 원조량의 확대와 더불어, ODA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일층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로서는 한정된 원조자금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의 이해와 지원을 얻기 위해 원조의 투명성의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정보공개와 홍보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원조국에 대해서도 이런 일본 국민의 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강하게 요구해 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실시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차이에 배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본과 같은 방식을 강요하거나, 일률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 원조에 대한 책임의식이 불충분하거나 수속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소요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피원조국에 대해 일본의 원조가 유효하게 사용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솔직히 요구하는 동시에 종래부터의 일본의 원조를 당연시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부적절한 사례가 거듭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도 한다는 것 등을 솔직히 전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일본의 요망은 상대국 정부 뿐만 아니라 현지의 보도 등을 통해 상대국 국민에 대해 널리 알려진 예도 나오고 있다.

(4) 일본의 원조 어프로치

일본은 40년 이상에 걸쳐 실적, 경험, 교훈을 토대로 개발문제에 대한 일본 독자의 어프로치로서 「발전단계에 따른 원조어프로치」, 「포괄적 어프로치」 및 「3가지의 균형」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다.

(가) 발전단계에 따른 원조에 실시(Differentiated Approach)

현재, 개발도상국 중에는 많은 동아시아 나라들처럼 급속한 경제발전을 계속 실현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남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처럼 여전히 경제의 혼미, 경상수지의 적자, 높은 인구증가율, 빈곤. 기아 등의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이런 개발도상국의 각각 다른 발전단계에 맞추어 각종의 원조형태의 유기적, 효과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매우 세분된 원조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런 원조어프로치에 의해 개발도상국이 스스로의 개발노력과 밖으로부터의 원조에 의한 발전을 계속하여, 최종적으로는 원조수익국으로부터, 새로운 원조제공국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다.

(1)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LLDC에 대해서는, 원조자금의 반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무상자금 협력이나 기술협력이 협력의 중심이 된다. 94년의 대 LLDC원조의 91.2%는 증여(무상자금협력 및 기술협력)이었다. 협력의 대상분야는 주로 인도원조나 기초생활분야(BHN)가 중심이 되지만, 일부의 국가에 대해서는 통상은 엔차관에 의해 대응하고 있는 기초기반정비(경제인프라)에 대해서도 무상자금협력으로 대응하도록 되었다.

(2)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93년 1인당 GNP 1,345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무상자금협력 및 기술협력에 의한 사회분야. 인재양성 협력과 함께 반제 의무가 따르지만 대규모 자금을 공여할 수 있는 엔차관에 의해 기초적 경제기반 정비에의 협력을 실시한다.

(3) 태국이나 터키 등의 개발도상국(1인당 GNP 1,346달러 이상 2,785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무상자금협력은 행하지 않고(원칙, 무상은 졸업), 경제. 사회기반정비를 위한 엔차관이나 개발단계에 적합한 기술협력에 의한 인재양성에의 지원을 실시한다.

(4)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1인당 GNP 2,786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엔차관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생긴 지역격차의 시정이나 환경보전 등의 과제에 대응하는 분야에 제공하고, 기술협력에 의한 고도의 기술의 이전을 꾀한다.

이런 사고방법에 대해서는, ODA기본방침에 있어서도 「ODA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발전단계 및 원조수요에 적확하게 대응하도록하고,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 및 기술협력의 각 원조형태 및 그밖의 협력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그 유기적인 연휴.조정을 도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포괄적 어프로치(Comprehensive Approach)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공여라는 수단만으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조에 덧붙여 개발도상국과의 사이에 무역이나 직접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조는 이런 무역이나 민간자금의 유입이 용이하게 되도록 기반정비를 위해 행해져야하며, 동시에 민간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보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전후의 일본 자신의 경제부흥,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포괄적인 어프로치의 유효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제까지 수출지향형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해온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엔차관에 의한 경제분야의 기초 인프라의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기초적 요소인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해서도 기술협력 등에 의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해 왔다. 이런 경제 인프라의 충실에 의한 투자환경의 정비와 인재양성 원조에 의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서로 어우러져, 국내투자나 일본을 필두로 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확대하고 생산능력이 증대

함과 더불어, 수출산업이 육성되어 무역량이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분야에의 협력은 무상자금원조 등에 의한 보건, 위생 등의 사회인프라의 충실과 상승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의 향상(유아 사망율의 저하, 안전한 음료수의 확보 등), 도시와 농촌의 격차의 시정 등에 기여하게 되었다.

동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이런 원조, 투자, 무역의 사이의 유기적인 연휴가 성공리에 진행된 예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런 경험을 계속 참고하면서 베트남이나 남서아시아 여러나라, 더욱이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한 아시아 이외의 지역의 국가들의 발전이 같은 형태의 어프로치에 의해 어디까지 진전될 것인가가 앞으로의 큰 과제이다.

<포괄적 어프로치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에의 지원>

정부개발원조(ODA)

경제인프라 정비, 인재양성

보건, 위생 등의 사회인프라 정비

국내민간투자의 확대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생산성향상, 생산력의 증대

무역의 확대

경제적 자립

ODA대강에 있어서도 “ODA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일본 및 이룩에 성공한 동아시아, 동남 아시아 여러나라 등의 개발정책의 경험의 활용을 도모한다”는 것, 및 “정부개발원조와 직접투자, 무역이 유기적인

연관을 계속 가지고 실시되어, 총체적으로 개발국의 발전을 촉진하려고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3가지의 균형(Balanced Approach)

최근 원조의 소프트면에서나 풀뿌리 원조가 중시되고 있으나, 이런 원조에 관해서는 일본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한편, 일본이 이제까지 중시해온 인프라 정비를 시작으로 하는 원조는 현재에 있어도 조금도 그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이하에 열거하는 것처럼 각종 원조사이의 3가지 균형에 유의하여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1) 전통적인 원조분야와 새로운 원조분야의 균형

전통적인 분야라는 것은 도로, 항만, 발전소의 건설 등의 경제 인프라나 식량원조, 의료·보건 분야 등의 기초생활분야 등이며, 새로운 분야라는 것은 지구환경, 인구·에이즈, 어린이의 건강에서 보이는 것처럼 냉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인류가 공통하여 직면하고 있는 지구규모의 문제, 개발도상국의 여성지원(WID), 개발도상국의 민주화나 시장경제화への 지원 등을 의미한다.

(2) 하드웨어 면의 협력과 소프트웨어 면의 협력의 균형

하드웨어 면의 협력이란 경제 인프라나 병원의 건설 등에서 보여지는 「물건」을 주체로 한 협력이며, 소프트웨어 면의 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받쳐주고 있는 인재의 육성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각종의 제도를 만들어가기위한 협력 등을 가리키고 있다.

(3) 대형원조와 풀 뿌리 수준의 소규모 원조의 균형

대형원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엔차관으로 정비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정비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고, 소규모 원조의 예로서는 지방공공단체나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NGO에 대한 지원이나 청년해외협력대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소프트 분야의 원조의 충실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사회기반정비를 위한 자금협력 등 하드웨어 면에서의 협력과 동시에, 경제나 사회 제도 및 체제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받쳐가는 인재의 육성이나 개발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한 협력(Institution Building)이라는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는 구사회주의 여러나라나,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소프트면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의 보전이나 높은 인구증가율의 억제등의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제도나 법체계 등의 면에서의 협력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 기초하여 최근 일본은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원조의 충실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베트남의 요청을 받아 동국의 개발계획, 산업정책의 책정 등에 기여할 학식경험자의 참가를 얻어 종합적인 정책지원계획을 책정할 개발조사를 행하고 있다. 이것은 95년 5월에 도무오이 서기장이 방일했을 때 일월(日越)수뇌회담에서 합의된 것인데, 95년 6월에는 학식경험자 그룹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형성조사단이 베트남에 파견되어, 5개년계획, 산업정책, 재정·금융정책의 책정을 위한 협력을 행하는 것으로 대개 합의에 달했다. 이 본협력은 도무오이 정책아래서 시장경제화 도입에 노력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일본으로서 본격적이며 종합적인 지적지원을 실행하는 첫 시도이다.

<대 베트남 종합정책지원 개발조사 실시체제>

일본측

외무성 검토위원회
관계 부처, JICA
학식경험자

베트남측

스태어링 코미티
국가계획위원회, 재무성
중앙은행 등

지시

JICA감독위원회

관계 부처, JICA
학식경험자

조언. 지도

조사실시체

학식경험자 그룹

조언. 지도

실무자 그룹

국가계획위원회, 재무부

중앙은행 등

컨설턴트 그룹

95년도 개발계획책정에 관한 개발조사

96년도

산업정책책정에 관한 개발조사

재정. 금융개혁에 관한 개발조사

정부개발원조 기본방침(政府開發援助大綱)

1992년 6월 30일

각의결정

일본은 정부개발원조를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원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개발원조 기본방침을 정한다.

1. 기본이념

세계의 대다수를 점하는 개발도상국에는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이 기아와 빈곤에 고통받고 있기에, 인도적 견지에서 국제사회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또 세계는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고 자유, 인권, 민주주의등이 확보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안전과 발전이 불가결하다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상호의존관계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환경의 보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인류적인 과제가 되어있다.

한편 평화국가로서 일본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번영을 확보하기위해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본은 우선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범위한 인재양성, 국내의 여러 제도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경제사회기반) 및 기초생활분야의 정비등을 통해 이들 국가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효율과 공정이나 「좋은 통치」의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경

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개발원조를 실시한다. 이 때 환경보전의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지구적 규모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지원의 노력에 의해 일본과 다른 여러나라,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는 일층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원칙

정부개발원조들의 실시할 때는 국제연합헌장의 여러 원칙(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 불간섭)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상대방국의 요청, 경제사회적인 상황, 양국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토록 한다.

- (1)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 (2)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에 사용되는 것을 피한다.
- (3)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그 국내자원을 자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적절하고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병기, 미사일의 개발, 제조, 무기의 수출입등의 동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4)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민주화의 촉진,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을 병행함과 함께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중점사항

(1) 지역

아시아지역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지역, ASEAN 여러나라는 전세계 중 활력있는 지역이 되고 있고, 그 경제발전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예전부터 빈곤에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계속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둔다.

동시에 세계전체의 빈곤이나 경제의 곤란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고, 아메리카, 중근동, 중남미, 동구 및 대양주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한 협력을 행해 간다. 특히 후진개발도상국(LLDC)를 배려한다.

(2) 항목

(가) 지구적 규모의 문제의 취급

환경문제, 인구문제등의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의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이들의 문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한다.

(나) 기초생활 분야(BHN) 등

기아, 빈곤에의한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난민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분야(BHN: Basic Human Needs)를 중심으로한 지원 및 긴급원조를 실시한다.

(다) 인재양성 및 연구협력 등 기술의 향상, 보급을 가져오는 협력

장기적 시각에서 볼때, 자조노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만들기의 기본이 되는 인재양성 분야의 지원을 중시한다. 또 개발도상국 자신의 연구개발 능력 및 적응능력을 높이는 연구협력 등 기술의 향상, 보급을 가져오는 협력을 추진한다.

(라)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경제사회개발의 중요한 기초조건인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에 대한 지원을 중시한다.

(마) 구조조정 등

시장 메카니즘 아래 민간의 창의, 활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위한 조정 및 누적채무문제의 해결을 향한 적절한 지원에 노력한다.

4. 정부개발원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안

- (1) 상대국으로부터의 요청과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추진하여, 개발정책 등의 기본인식을 상대방국가와의 사이에 공유하기 위해 밀접한 정책대화를 추진한다.
- (2)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발전단계 및 원조수요에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 및 기술협력의 각지원형태 뿐 아니라 그 밖에 협력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그 유기적인 연대·조정을 도모한다.
- (3) 필요에 따라 다른 선진국의 원조기관, 국제연합의 여러 기구, 국제금융기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 등과의 적절한 운대·협조를 도모한다. 특히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에 대해서는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 활동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기관이 지닌 전문적 지식, 정치적 중립성등의 특질을 충분히 살릴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민간지원단체(NGO)와의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행한다.
- (4) 일본 및 이룩에 성공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개발정책의 경험을 경험의 활용을 도모한다.
- (5) 환경문제에 관한 지원을 행할 때는 일본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양립에 성과를 거뒀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기술, 노하우등을 활용한다.
- (6) 개발도상국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기술이전 등을 뒷받침하기위해, 필요한 경우는 기술에 관한 기술개발에 참여함과 동시에 다른 개발도상국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 (7) 일본이 가진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해 공적부분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그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이 행하는 기술협력을 지원한다.
- (8)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규모의 문제에 대응하기위해 국제기구 및 아이사태평양경제협력(APEC)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조직과 협력을 강화시킨다.
- (9) 정부개발원조와 직접투자, 무역이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실시되어, 전

체로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 일본수출입은행등을 통한 민간경제협력과의 연대당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

(10) 적절한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안건을 발굴.형성을 위한 협력 및 조사를 충실히한다. 또 앞으로 협력에도 자료가 될도록 제3자에의한 평가 및 다른 국가와의 합동평가를 포함한 평가활동을 충실히 한다.

(11)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역연구, 개발정책연구, 정부개발원조의 종합평가등을 추진한다.

(12) 개발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및 개발로부터 여성이 받는 이익 확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다.

(13)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충분히 배려한다.

(14)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 및 지역격차의 시정에 배려한다.

(15)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를 둘러싸고 부정이나 부패를 일으키지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5. 내외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방안

정부개발원조의 실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이해 확보하고, 또한 국민의 참가를 확보하기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강구한다.

(1) 정보공개의 촉진

상대국가에 대한 외교적 배려 등을 고려하면서, 정부개발원조의 실시상황을 정리하여 국회를 시작으로 널리 국민에게 밝히는 등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정보공개를 촉진한다.

(2) 홍보.개발교육의 강화

조직적인 홍보활동의 강화, 개발원조에 관한 교육을 촉진한다.

6. 실시체제등

(1) 인재의 양성. 확보. 활용

정부개발원조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확보. 활용을 도모하기위해, 인재의 양성기관의 충실등을 통해, 개발전문가, 민간컨설턴트 등의 육성을 도모한다.

(2) 효과적. 효율적인 실시체제의 확보등

관련 부처간의 연락. 협의체제를 확립하고, 정부개발원조의 효과적. 효율적인 실시체제를 확보한다. 또 원조실시기관인 국제협력사업단(JICA) 및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의 상호 연락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의 실시체제를 정비한다. 민간부문의 협력을 얻기위해 업무의 코스트에 대응하여 적절히 지원토록 노력한다.

(3) 파견된 원조관계자의 안전의 확보등

개발도상지역에 파견된 원조관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토록 계속 노력한다.

정부개발원조의 제5차 중기 목표

1993년 6월 25일

정부개발원조(ODA)는 일본의 국제공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으며, 종전부터의 착실한 확대노력에 의해 최근 일본이 세계최대의 원조국이 되었다.

냉전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구축해가는 위에, 개발도상국의 안정 및 지속적 발전은 계속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 규모의 문제나 민주화,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증가등에 의해 추가적인 원조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는 가운데, 빈곤층의 확대나 경제의 혼란등 많은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심각화되어, 개발도상국의 이룩을 향한 자조원조를 지원한다는 기본이념의 아래, ODA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화에서 어려운 재정사정 아래, 앞으로도 ODA의 확충을 통한 우리나라의 세계에 대한 공헌을 더욱 충실히하기위해, 1992년 6월에 책정된 정부개발원조기본방침의 이념, 원칙등을 바탕으로, 1993년부터 1997년의 5개년간을 대상으로하는 중기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우선 본 목표는 국내외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개선을 꾀한다.

아래

I.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지위에 걸맞는 국제공헌으로 ODA를 계속해서 추진하기하기위해, 1993년부터 1997년 5개년간의 ODA실적총액을 700-750억 달러로 하기위해 노력노력한다. 또한 ODA의 GNP비율에 대해서도 그 착실한 개선을 도모토록한다.

II. ODA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발전단계 및 원조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원조를 각 원조형태

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하면서 실시한다.

무상자금협력 및 기술원조에 대해서는 그 확충을 도모하고, 증여부분의 증가에 노력한다. 특히 후발개발도상국(LLDC)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무상 원조를 실시한다.

유상원조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하기위해 경제사회 기반정비의 중요성에 계속 유의하고 형태의 다양화를 도모하면서, 착실한 추진에 노력한다. 또한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배려하면서 앞으로도 그 재정기반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인적 및 지적공헌을 촉진한다. 나아가 일본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상대국가와의 정책대화의 긴밀화를 도모함과 함께 ODA가 직접투자, 무역과 유기적인 연관을 갖으면서 실시되어, 총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III. ODA대강의 중점분야에 유의하면서, 환경, 인구등 지구적 규모의 문제, 기초생활분야(BHN: Basic Human Needs), 인재양성,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등의 분야의 원조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분야의 원조에 대해서는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표명한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키기위한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위해 유상자금협조 및 무상자금협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IV. ODA의 효과적. 효율적인 실시를 확보하기위해, 원조요원의 확충을 중심으로하여 원조실시체제의 정비. 확충을 도모한다. 특히 안전발굴과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조사를 포함한 각종 조사를 더욱 확충시키고, 지역연구. 개발정책연구의 확충을 도모함과 함께 계속적인 평가활동의 확충을 도모한다. 또한 개발전문가, 민간 컨설턴트 등의 원조관계자의 육성을 도모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민간원조단체(NGO)등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주요국에 대한 국별 원조방침

이제까지의 원조실적 및 많은 정책대화의 결과를 참고한 주요원조국에 대한 국별 원조방침을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실시상황(1994년도)에 관한 연차보고」로부터 전재)

인도네시아 국별지원방침

1. 기본방침

(1) 일본의 원조대상국으로서의 위치

(가) 인도네시아는 인접국으로서 일본과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 투자 등의 면에서도 일본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는 등 일본에 있어서 정치, 경제면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 것,

(나) 일본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 공급국이 되고 있으며, 또한 비동맹운동이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의 의장을 맡는 등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다) 더욱이 1억 8천만에 달하는 인구규모를 가지고, 제6차5개년계획의 최종년(99년)에 1인당 GNP를 1,000달러로 신장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원조수요가 예견되고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원조를 실시한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양국간 원조실적(94년까지의 지출순액누계)에서 제1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2) 일본 원조의 중점분야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개발의 현황과 과제, 개발계획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94년 2월에 파견한 경제협력 종합조사단과 인도네시아 측과의 정책 대화를 참고하여 이하의 분야를 원조의 중점분야로 하고 있다.

(가) 공평성의 확보(국가 전체의 균형있는 개발을 목표로 한다.)

(a)빈곤박멸(빈곤층의 생활환경 개선), (b)기초생활 분야에 대한 지원(주거 환경의 정비, 보건의료), (c)인구.가족계획 등 에이즈 대책, (d)동부 인도네시아의 개발(지역간 격차 시정)

(나) 인재양성.교육분야(동국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위한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재양성)

(a)초등.중등교육의 충실, (b)교원의 지 향상(초등중학교의 이과 수학과 교원등), (c)기능.기술자 교육의 충실

(다) 환경보전(급속한 개발에 따라 생기는 환경문제에의 대응)

(a)삼림등의 자연자원.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의 보전등) 및 지속가능한 이용, (b)도시거주 환경 및 공해면에서의 협력, (c)환경문제에 있어서 체제의 정비(환경관련의 분석능력의 향상 등)

(라) 산업구조의 재편성에 대한 지원(건전한 거시경제운영 및 폭넓은 기초산업진흥에 대한 지원)

(a)거시경제운영에 대한 지원, (b)기초산업의 진흥, (c)농업진흥(농산물 다양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의 생산)

(마) 산업기반 정비(투자의 지속적인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

(a)전력, (b)수자원개발, (c)운수, (d)통신

(3) 유의점

일본은 각 원조형태의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해 왔고, 그 일환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농민의 소득향상을 필요한 농업.농촌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인도네시아 협력의 실시를 목표로 현재 인도네시아측과 검토를 계속하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주변국 및 아프리카 등의 다른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자신의 경험.기술을 활용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남남협력으로서 이런 움직임에 측면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2 인도네시아 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주요경제지표

1인당 GNP(93년)과 동성장율(85-93년 평균)	실질 GNP 성장율
730달러, 4.8% (세계은행)	90년 7.2%, 91년 6.9% 92년 6.4%, 93년 6.5%, 94년 7.3%(전망치)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

(2) 현황

세계개혁. 금융개혁 및 무역. 투자. 유통등의 각분야에 걸친 규제완화조치가 들어간 경제구조개혁 노력에 의해 석유의존형 경제로부터의 탈피, 민간주도형 경제성장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3) 과제

인플레이의 억제, 경상수지의 개선, 대외누적채무의 적정관리에 중점을 두는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을 지속

빈곤대책. 소득격차의 시정, 지역간 격차의 시정

산업 및 경제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기술육성, 고용대책

도시에 있어서 생활환경개선, 공해대책과 자연환경 보전

경제개발의 기반이 되는 경제인프라 및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3. 개발계획

제6차5개년계획(1994년-98년도)

(목표) 제2차25개년개발계획에서 경제상의 이룩을 목표로 하고, 제6차5개년계획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다지기를 행한다.

(목표치) 연평균 경제성장을 6.2%

인구증가율 1.5%(종료시)<-제5차5개년계획달성치 1.66%(전망치)

국민1인당 GNP 1,000달러(종료시)<-60달러(92년)

절대적 빈곤층 1,200만명 이하(종료시)<-2,700만명(90년)

4. 원조실적

(1) 일본의 실적(지출순액, 단위:백만 달러)

	유상	무상	기술협력	합계	공여선순위
94년(역년)	636	72	169	877	3위
94년(역년)까지의 누계	9,387	822	1,386	11,595	1위

(2) DAC국의 실적(지출순액, 93년(역년), 단위:백만달러)

2국간 총액	1위	2위	3위
1,911	일본 1,149	독일 279	프랑스 114

(3) 국제기관의 ODA실적(지출순액, 93년(역년), 단위:백만달러)

2국간 총액	1위	2위	3위
109	ADB 59	UNDP 16	UNICEF 14

베트남 국별지원방침

1. 기본방침

(1) 일본의 원조대상국으로서의 위치

(가) 베트남의 안정 및 경제발전이 인도지나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나) 91년 10월의 파리협정서명 이래, 정치면, 경제면뿐만 아니라 문화, 학술면에서도 일본과의 긴밀화되가는 점,

(다) 베트남은 86년부터 시장경제원리의 도입등을 주축으로한 경제개혁(도이모이)를 추진함과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서방이나 중국과의 관계개선. 확대를 진행해 온 점,

(라) 약 7천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1인당 GNP가 낮고 원조수요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조를 실시한다.

우선 베트남은 일본의 양국간 원조실적(94년까지의 지출순액누계)에서 제 26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2) 일본 원조의 중점분야

일본은 베트남에 대한 개발의 현황과 과제, 개발계획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94년 10월에 파견한 경제협력 종합조사단과 베트남 측과의 정책대화를 참고하여 이하의 분야를 원조의 중점분야로 하고 있다.

(가) 인재양성. 제도 만들기(특히 시장경제화 이행지원)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협력 및 직업훈련 관련분야에 있어서 협력

(나) 전력. 운수(수출지향형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투자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

장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위한 전력분야의 협력, 각 교통형태의 특성에 따른 운수분야에서의 협력

- (다) 농업(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생산의 다양화에 필요한 협력)
농업관련 인프라의 정비 및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등에 필요한 협력
- (라) 교육, 보건, 의료(적절한 교육, 의료수준의 유지에 대한 협력)
시설, 설비의 정비 및 고등교육,ワク진 공여등에 대한 협력
- (마) 환경(환경분야에 대한 협력을 중시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배려를
충실)
식목, 삼림경영계획 책정의 지원, 도시환경정비 및 공해방지에 관한 협력

(3) 유의점

원조 흡수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인도지나 지역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두어 광역적인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하고, 각 협력형태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하면서,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베트남 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주요경제지표

1인당 GNP(93년)과 동성장율(85-93년 평균)	실질 GNP 성장율
170달러, 4.8%	90년 5.0%, 91년 6.0%
	92년 8.6%, 93년 8.1%,
	94년 8.7%(전망치)
(세계은행)	(세계은행)

(2) 현황

1986년 이후 도이모이정책의 기치하에 시장경제에의 이행에 착수하여, 경제적 수준은 아직 낮으나 대체로 양호한 거시경제의 실적을 보여오고 있다.

(3) 과제

사회경제 인프라나 농업기반의 정비
재정, 금융면에서의 제도개선, 국영기업 개선의 촉진
시장경제에 적합한 법제도 정비, 인재육성
계속 확대해가는 빈부의 격차 시정
각종 부정행위의 방지

3. 개발계획

2000년까지의 경제사회 안정과 발전 전략(1991년-)

(목표) 2000년까지 1990년의 1인당 GDP를 2배로 끌어올린다.

2000년까지 1990년의 수출을 5배로 끌어올린다.

인플레이의 억제와 외환의 안정(목표연간 물가상승율 10% 미만)

안정성장(목표는 연평균 GDP성장율을 5.5%-6.5%로 한다)

농업부문의 연평균 성장율을 4-5%, 공업부문의 연평균성장율을 10-12%로 한다.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매년 0.04%-0.06%로 끌어내린다.

4. 원조실적

(1) 일본의 실적(지출순액, 단위:백만 달러)

	유상	무상	기술협력	합계	공여선순위
94년(역년)	-10	59	26	75	24위
94년(역년)까지의 누계	344	190	81	615	26위

(2) DAC국의 실적(지출순액, 93년(역년), 단위:백만달러)

2국간 총액	1위	2위	3위
226	스웨덴 44	이탈리아 32	프랑스 31

(3) 국제기관의 ODA실적(지출순액, 93년(역년), 단위:백만달러)

2국간 총액	1위	2위	3위
94	UNDP 19	UNICEF 17	WFP 16

태국 국별지원방침

1. 기본방침

(1) 일본의 원조대상국으로서의 위치

(가) 일본.태국 양국은 외교관계를 개설한 이래, 전통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분야에 있어서 우호관계를 증진시켜 왔으며, 무역.투자 등의 면에서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온 점,

(나) 또한 최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문제 및 인재부족, 인프라 부족, 지역간 격차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조수요도 높아져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조를 실시한다.

우선 태국은 일본의 양국간 원조실적(94년까지의 지출순액누계)에서 제4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2) 일본 원조의 중점분야

일본은 태국에 대한 개발의 현황과 과제, 개발계획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89년 7월에 파견한 경제협력 종합조사단과 태국 측과의 정책대화를 참고하여 이하의 분야를 원조의 중점분야로 하고 있다.

(가) 인재의 육성(인재육성은 태국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

(a)부족한 기술자.숙련노동자의 육성, (b)교육분야의 충실

(나) 환경.천연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개발계획에 있어서도 환경을 중시)

급속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특히 삼림의 감소)나 공해문제에의 대처

(다) 수출.투자 촉진(국제경쟁력의 유지)

(a)공업기반정비, (b)저변산업진흥, (c) 태국산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

(라) 경제사회기반정비(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병목 해소)

전력, 운수, 통신, 수자원등의 경제사회기반의 정비, 고도화 등
 (마) 지방개발(도시와 지방의 지역간 격차의 시정) 및 지역개발
 (a)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의 생산성 향상, (b) 지방산업의 진흥 등을 통한 지역간 격차의 시정, (c) 동부임해지대개발등의 지역개발
 (바) 과학기술, 관광, 기초적 생활분야
 위에 덧붙여 에이즈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

(3) 유의점

태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93년도부터 무상자금협력의 제공을 종료했다.

태국은 인도지나 여러나라의 대한 협력을 계속 하면서, 일본은 태국의 원조국화를 지원해야하며, 94년 8월 「일본-태국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2 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주요경제지표

1인당 GNP(93년)과 동성장율(85-93년 평균)	실질 GNP 성장율
2,040달러, 8.4%	89년 12.3%, 90년 11.5%
	91년 7.9%, 92년 7.4%,
	93년 7.8%(전망치)
(세계은행 자료)	(태국중앙은행 자료)

(2) 현황

88년부터 90년에 걸쳐 급증한 직접투자의 유입을 배경으로 80년대 후반에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고, 90년대에 들어서부터도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보

이고 있다.

(3) 과제

산업과 경제의 고도화에 대응한 기술자, 숙련노동자의 육성
대기오염을 시작으로한 공해대책과 자연환경보전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경제 인프라의 정비
지역간 격차의 시정

3. 개발계획

제7차경제사회개발계획(1992년-96년)

(목표) 적절한 수준의 안정된 성장의 지속

소득분배의 불공평 및 지역간차이의 시정

인적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 개선 및 환경·천연자원의 보전

(목표치) 평균경제성장을 8.2%

인플레이션 5.6%

무역수지적자의 대 GDP비 9.4%

4. 원조실적

(1) 일본의 실적(지출순액, 단위:백만 달러)

	유상	무상	기술협력	합계	공여선순위
94년(역년)	218	27	132	377	5위
94년(역년)까지의 누계	3,164	860	1,190	5,214	4위

(2) DAC국의 실적(지출순액, 93년(역년), 단위:백만달러)

2국간 총액	1위	2위	3위
563	일본 350	오스트리아 37	프랑스 32

(3) 국제기관의 ODA실적(지출순액, 93년(역년), 단위:백만달러)

2국간 총액	1위	2위	3위
53	UNHCR 18	CEC 18	WFP 5